

2020 December Vol.99

대입정보매거진

대학입학 정보를 한눈에 받아보세요!

대입뉴스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대입뉴스

2021학년도 수시 지원횟수 결과



대입정보 활용하기 1

202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정 안내



대입정보 활용하기 2

2021학년도 정시 서류제출
마감일정 안내





연관 홈페이지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언론 미디어 | 선생님 모임 | 어디가 활용하기



서울특별시 공천구 서부셋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리스 A동 23층 Tel.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개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모든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시 기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20.11.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이신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조치하셔야 합니다.
3. 일반수험생, 확진수험생, 격리수험생은 모두 시험 응시 장소가 다르고 시험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2021학년도 수능은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수험생 상황		시험장(시험실)	
무증상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일반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별도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	별도 시험장	

2.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합니다. 따라서 수능 지원자는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하여 아래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확진·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 연락처

서울 02-399-9440

대전 042-616-8312

충북 043-290-2286

경남 055-268-1392

부산 051-860-0315

울산 052-210-5462

충남 041-640-6741

제주 064-710-0293

대구 053-231-0396

세종 044-320-2235

전북 063-239-3722

인천 032-550-1738

경기 031-820-0970

전남 061-260-0121

광주 062-380-4571

강원 033-259-0866

경북 054-805-335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응시가 가능한지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를 관할교육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걱정은 넣어둬~ 넣어둬! 안전하고 알찬 수능 이후 고3 교실을 기대해 줘!



하나 예비사회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학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현명한 경제생활을 위한
금융·경제교육



평소 미뤘던 나를 위한
자기개발교육

둘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예방

**학생 안전
특별기간**

12.03.~12.31.



유해환경



유해약물

숙박업소

차량 대여

2021학년도 수시 지원 횟수 결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횟수 검색 결과, 1인당 평균 4.73회를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 대교협이 올해 수시모집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지원 건수는 212만 1,694건이었고,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지원 횟수는 0.01회 감소한 4.73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337명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년대비 수시모집 지원 관련 증감 현황

학년도	지원인원	지원건수	1인당 평균 지원횟수	위반 사전 예방자
2020학년도	500,633명	2,374,672건	4.74회	365명
2021학년도	448,678명	2,121,694건	4.73회	337명
증감 (전년대비 %p)	-51,955명 (11.6%p 감소)	-252,978건 (11.9%p 감소)	-0.01회 (0.2%p 감소)	-28명 (8.3%p 감소)

□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원서부터 접수가 취소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단, 산업대, 전문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부모 모두가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전형은 지원 횟수 집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교협은 수험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시모집을 시행한 209개 대학(캠퍼스 포함)의 지원 자료를 수합하여 총 지원자 44만 8,678명 중 337명의 지원 횟수 6회 초과자를 사전에 검출하고, 해당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지원 횟수 초과 수험생에게 확인 후 접수 취소하도록 안내했다.

□ 대교협은 앞으로 시행될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대해서도 위반 검색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 스스로 수시모집 합격 후에 정시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군 복수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과 등록 과정에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의 대학 지원 현황 및 대입지원 위반 여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조회 방법 : 대입정보포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 대입원서 지원정보]에서 수험생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

○ 조회 내용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내역 조회(수시모집 지원내역은 일반대만 해당),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 조회

대입지원 현황 및 위반 정보 조회 방법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마이페이지]-[대입원서 지원정보] 클릭 후 본인인증 확인

모집시기별 지원 현황 및 대입지원 위반 정보 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ADIGA portal home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정보안내', '대학 학과소개', '성적관리', '대입정보', '대입정보센터', and '마이페이지'. Below this, a banner area features a search bar and two main buttons: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and '대입정보' (Admission Information). The '대입정보'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sections including '대입정보센터' and '대입정보' with various links and statistics.

The screenshot shows the '마이페이지' (My Page) section. The '대입원서 지원정보' (Admission Application Support Information) tab is selected. It displays a table with columns for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대학/학과/전공' (University/Department/Major), '성적관리' (Grade Management), '대입정보' (Admission Information), '대입정보센터' (Admission Information Center), and '마이페이지' (My Page). The '대입원서 지원정보' colum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for '본인인증 확인' (Self-authentication Confirmation) with two options: '아이핀(PIN) 인증' (i-PIN Authentication) and '본인인증' (Self-authentication).

The screenshot shows the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section. It features a table with columns for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지원대학' (Supporting University), '지원학과' (Supporting Department), '지원전공' (Supporting Major),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and '지원정보' (Application Information). The table lists various application statuses and dates.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for '지원현황' (Application Status) with a table showing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each university and department.

2021학년도 정시 원서접수 마감일정 안내

개요

2021학년도 정시 요강이 9월 1일자로 발표되었다. 거의 모든 대학교가 1월 11일(월요일)에 마감을 한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의 경우 그 이전에 마감하는 곳도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 마감시간이 다르다. 마감 시간 즈음에 접속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학별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0년 9월 1일 발표한 <각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제작됨.
2. 추후에 수정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함.

지역	일정	요일	시간	대학교
서울	1월 9일	토	18시	서울교대, 서울대
	1월 11일	월	16시	한국체육대
			17시	가톨릭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서경대, 서울기독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
			18시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장로회신대, 중앙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홍익대
			19시	케이씨대
			20시	감리교신대
경기	1월 11일	월	17시	경기대, 단국대, 루터대, 수원가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아주대, 한양대(에리카)
			18시	가천대, 강남대, 대진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수원대, 안양대, 용인대, 차의과학대, 퍼펙트대, 한경대, 한국산기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19시	신경대
				신한대
인천	1월 11일	월	17시	경인교대, 인천대
			18시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강원	1월 10일	일	17시	춘천교대
	1월 11일	월	18시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20시	상지대
			22시	한라대
				경동대
대전	1월 11일	월	17시	침례신학대
			18시	을지대, 충남대, 한밭대
			19시	대전대, 우송대, 한남대
			20시	목원대, 배재대
			21시	대전신학대
세종	1월 11일	월	17시	대전가톨릭대
			18시	고려대(세종)
충북	1월 10일	일	17시	청주교대
	1월 11일	월	17시	극동대
			18시	중원대, 청주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19시	건국대(글로벌), 충북대
			20시	서원대
			21시	꽃동네대, 세명대
				유원대
충남	1월 9일	토	18시	공주교대
	1월 11일	월	17시	단국대(천안), 금강대, 청운대
			18시	공주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백석대, 상명대(천안), 선문대, 순천향대, 충남대, 한서대, 호서대
			19시	건양대, 한국기술교대
			20시	중부대
대구	1월 11일	월	18시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경북	1월 11일	월	17시	영남신학대
			18시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금오공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위덕대, 한동대
			20시	동양대

부산	1월 11일	월	17시	부산교대
			18시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한국해양대
울산	1월 11일	월	18시	울산대
경남	1월 11일	월	17시	진주교대
			18시	가야대, 경남과기대,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창신대, 창원대
			19시	경상대
광주	1월 11일	월	17시	광주교대, 호남신학대
			18시	광신대, 광주대, 남부대, 송원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20시	광주여대
전북	1월 11일	월	17시	예수대, 전주교대, 한일장신대
			18시	예원예술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20시	군산대
전남	1월 11일	월	17시	광주가톨릭대
			18시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순천대, 초당대
			23:59	한려대
제주	1월 11일	월	18시	제주국제대, 제주대

2021학년도 정시 서류제출 마감일정 안내

개요

2021학년도 정시 요강이 9월 1일자로 발표되었다.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의 경우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여전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0년 9월 1일 발표한 <각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제작됨.
2. 추후에 수정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함.

지역	일정	요일	시간	대학교
서울	1월 10일	일	18시	서울대
	1월 11일	월	18시	건국대
	1월 12일	화	17시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추계예술대, 한국외대, 한성대
			18시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한국체육대, 홍익대
				고려대, 명지대, 상명대, 중앙대, 한양대
	1월 13일	수	17시	가톨릭대, 경희대, 숭실대
			18시	동덕여대, 서강대, 성신여대
	1월 14일	목	16시	서경대
			18시	총신대
				성균관대
	1월 15일	금	17시	감리교신학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한국성서대
			18시	케이씨대
				덕성여대
	1월 18일	월	17시	성공회대
경기	1월 12일	화	17시	단국대, 을지대, 평택대, 한신대, 한양대(에리카)
			18시	차의과학대
				가천대, 신한대
	1월 13일	수	16시	성결대
			17시	강남대
			18시	서울신학대
				경기대

	1월 14일	목		아주대, 한경대
	1월 15일	금	17시	한신대
				대진대, 안양대
	1월 18일	월	17시	루터대, 아세아연합신대, 한국산기대, 한세대
			18시	한국항공대
경기	1월 18일	월		수원대
	1월 20일	수	17시	서울장신대
				신경대
	1월 21일	목	15시	용인대
인천	1월 11일	월		경인교대
	1월 12일	화	18시	인천가톨릭대
	1월 13일	수	17시	인천대
	1월 14일	목	17시	인하대
강원	1월 11일	월		경동대, 연세대(미래)
	1월 12일	화	17시	상지대, 한림대
			18시	강원대(춘천, 도계, 삼척)
	1월 13일	수	17시	가톨릭관동대
			18시	춘천교대
	1월 15일	금	18시	한라대
	1월 19일	화	18시	강릉원주대
대전	1월 11일	월	18시	충남대
	1월 12일	화	17시	을지대
	1월 13일	수	17시	우송대, 한남대
	1월 15일	금	17시	대전대, 배재대
	1월 18일	월	17시	한밭대
				침례신학대
	1월 19일	화	17시	목원대
	1월 20일	수	18시	충남대(사범대학-자기소개서)
세종	1월 12일	화		고려대(세종)
	1월 11일	월	18시	한국교원대
	1월 12일	화	18시	건국대(글로벌)
	1월 13일	수	18시	충북대
	1월 14일	목	18시	한국교통대

충북	1월 15일	금	17시	세명대
			18시	서원대
	1월 18일	월	17시	극동대, 세명대
				유원대
	1월 19일	화	17시	꽃동네대
	1월 20일	수	18시	청주교대
	1월 21일	목		청주대
	1월 26일	화	17시	중원대
충남	1월 11일	월	18시	충남대
				공주교대
	1월 12일	화	17시	단국대(천안)
			18시	공주대
				상명대(천안)
	1월 13일	수	17시	순천향대, 중부대
			18시	남서울대, 백석대, 호서대
				한서대
	1월 14일	목	17시	나사렛대
				선문대
	1월 15일	금	17시	금강대
				청운대
	1월 18일	월	18시	건양대
	1월 20일	수	17시	중부대
대구	1월 11일	월	18시	대구교대
	1월 12일	화	18시	계명대
	1월 13일	수	18시	경북대
경북	1월 12일	화	18시	금오공대, 동국대(경주), 한동대
	1월 13일	수	15시	영남대
			18시	경주대
	1월 14일	목	17시	김천대
			18시	대구가톨릭대
				위덕대

	1월 15일	금	18시	경운대, 안동대
				대구한의대
	1월 18일	월	18시	경일대, 동양대
	1월 20일	수	17시	대구대
	1월 22일	금		동양대
부산	1월 12일	화	17시	경성대, 신하대
				부산교대
	1월 13일	수	18시	부경대
	1월 14일	목	17시	동서대, 부산외대
				동명대
	1월 15일	금	16시	고신대
			18시	한국해양대
	1월 18일	월	17시	동아대, 동의대
	1월 19일	화		동명대
	1월 21일	목	18시	한국해양대(해사대학-건강진단서)
울산	1월 13일	수	18시	울산대
경남	1월 12일	화	18시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1월 15일	금	18시	경남과기대, 경남대, 영산대
				창신대
광주	1월 11일	월	18시	광주교대, 조선대
광주	1월 12일	화	18시	전남대
	1월 13일	수	18시	남부대
	1월 14일	목	17시	광신대
	1월 15일	금	18시	송원대, 호남대
	1월 18일	월	18시	광주대
				광주여대, 조선대(군사학과)
전북	1월 11일	월	17시	한일장신대
			18시	전북대, 호원대
	1월 12일	화	17시	원광대
			18시	군산대, 전주대
	1월 13일	수	17시	우석대
			18시	전북대

	1월 15일	금	18시	전주교대
				예수대, 예원예술대
전남	1월 13일	수	18시	목포대, 초당대
	1월 14일	목	18시	세한대
	1월 15일	금	18시	동신대
	1월 18일	월	17시	한려대
	1월 20일	수	18시	목포해양대
	1월 22일	금	18시	목포해양대(해사대학-선원건강진단서)
	2월 3일	수		초당대(항공운항학과-항공신체검사서)
제주	1월 15일	금	17시	제주국제대
			18시	제주대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분야는 영어권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영어권의 문화와 정신을 탐구하고 세계화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어권 문학 분야, 영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 분야, 전문영어 분야로 나뉜다.
문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설과 희곡, 시, 비평이론을 연구하고,
어학 분야에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음성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등의 언어적 체계를 익히며,
전문영어 분야에서는 영어회화와 작문, 영어 토론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엄지민 

학과, 전공 선택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영어가 좋아서 영어영문학과를 지망하며 학교를 찾아보고, 자소서를 밤새 고쳐 쓴 게 엊그제 같은데 멘토가 되어 전공 안내서를 작성하니 감회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도 어디에선가 영어영문학과 입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전공멘토단으로서 전공안내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 3년 재학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서 영어영문학과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영어영문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는 것과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신기하게 한국 소설이나 한국 영화 보다는 영미 소설과 해외 고전 영화들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문화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이 영문학에 빠져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문학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도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영어라는 언어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어를 배우다 보니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저에게 이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영문학 원서를 읽어보면서 번역을 할 때 막히는 부분도 많았지만, 단어를 찾아보고 문장 하나하나 해석해가다 보면 퍼즐 조각을 맞춰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것과 같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전공을 선택할 때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 준비방법

앞서 말했듯이 저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일찍 찾은 편이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전공 관련된 활동을 찾아서 했습니다. 영어가 좋았기 때문에 영자 신문 동아리에 들어가서 영문 기사를 작성해보기도 하고, 영자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국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겨 국제 교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활동 외에도 수업 시간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담당 과목 선생님께서 영어 도우미로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율학습 시간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저의 적성과 맞는 활동들로 채우다 보니 대입 준비를 할 때도 다른 큰 어려움 없이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고 자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보다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이나 전공과 관련해서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면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입학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입시 정보를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궁금한 점들이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시생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난관쯤은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수소문을 해서 제가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한 선배들을 찾게 되어 선배들에게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 해결하곤 했습니다. 먼저 생생한 경험을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니 홈페이지 속 글을 보는 것과는 달리 확실히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격려와 용원을 받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좋은 선배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제가 좋아하는 전공 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A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학교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영문학과 영어학을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입학해서 제 동기들을 보면 주로 영어영문학 하면 토익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진학을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공기초 과목이나 교수님들의 전공이 대부분 영문학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도 영문학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취업 영어나 자격증 관련 공부를 위해 본 전공을 선택한 친구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영어영문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문학에 대해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영어영문학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것이 없는 것이 대학에 오면 본인의 원하는 수업을 정해서 들을 수 있으니 나는 실용 영어를 더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교육과정에 맞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문학을 원서로 많이 접하다 보면 영어 실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늘어있고 영어 자격증 관련 공부를 할 때도 전공 관련해서 영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많은 양의 영어 텍스트를 접하다 보니 타 전공 학생들보다는 영어 자격증 공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미국의 도서, 특히 소설을 많이 읽어볼 것을 추천하고, 영미 시 관련 수업도 많기 때문에 학교생활 틈틈이 영미 시를 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도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미 시를 찾아 제가 직접 번역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영문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이렇게 대학에 와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취업은 어떤 길로 하게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가 공통어로 쓰이면서 일단 학부 생활동안 영어를 공부했다는 것이 분명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학하게 되면 토익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동안 토익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졸업 후 따로 토익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쓰이는 진로는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복수전공을 하여 영어와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취업하는 사례 또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공인 영어도 살릴 수 있고, 관심이 있었던 국제 경영 공부를 위해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해외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게 영어영문학 전공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영문학이나 영어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종에 맞는 자격증이나 시험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필요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여기까지가 영어영문학 전공을 지원하는 입시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 이후에도 또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것이 문학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이정표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학 속 등장인물들의 삶에서 현실 속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하고, 인간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매력이 있는 영문학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면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분야는 전산학·컴퓨터공학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 산업 등에 적용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산수학, 컴퓨터구조학,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이 있다.

숭실대학교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김한비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도, 성격이 활발한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다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 관한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고,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간 다양하게 빅데이터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하며, 모든 사회 시스템이 잘 운영되게 하는 데에는 빅데이터가 필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활동은 자율동아리에서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기술적 측면과 인문학적 측면으로 나뉘어 진행했던 빅데이터 세미나입니다. 이는 직접 도출해낸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꿈을 이루고자 숭실대학교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방법

제가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순탄하게 보낸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 소심했던 성격 탓에 동아리 부장, 자율동아리 부장, 학생회 활동을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적도 많습니다. 각종 직책을 맡아본 것이 처음이라 서툴기도 했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양한 경험을 계기로 성장했다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 준비를 하려고 보니 자신감도 없었고, 무슨 전형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 성적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글을 읽고 있을 여러분도 그 당시의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하며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는 정보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었고, 빅데이터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자 했기에 관련 대학을 찾았고, 대학마다 빅데이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도 있었고, 숭실대학교처럼 융합학부에 세부적으로 빅데이터 전공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서를 넣기 일주일 전까지도 숭실대학교의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진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 빅데이터 전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진로 목표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보다 면접 준비를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많은 발표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각종 임원직을 맡으며 말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가까워져 올 무렵,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남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나와 모의 면접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예상과는 달리 입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고, 말하는 문장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그때의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간단한 면접 질문에 대답할 때조차 자주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았고, 집에서 혼자 동영상 찍어보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대로 미래는 이루어진다는 우종필 교수의 책은 빅데이터 사용설명서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정보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 친구들과의 모의 면접을 통해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을 수 있었습니다. 큰 노력 끝에 면접 당일, 저는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성공적으로 면접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대학교에 입학해보니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시간표를 짜는 것은 조금의 책임이 따르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꽃이 피는 봄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캠퍼스를 누리고, 놀러 다닐 수 있다는 것은 대학생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는 한층 더 발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발명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발명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으며, 직접 발명품 모형을 만들어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숭실대학교에서 바람개비라는 발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동아리 부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며 서로의 의견에 피드백해주고 좋은 아이디어로 발명 대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나간 대회에서는 도면 그리기, 모형 제작 등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지금은 직접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고, 공구 사용법을 익혀 모형을 제작합니다. 대학교는 자신의 취미를 살리고, 자기계발을 하며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마지막으로 저의 전공인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역량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수요가 많은 전공 분야의 인력 배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학부입니다. 1학년 때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전공기초교육, 융합 역량교육, 창의교육 등을 이수하며 2학년 진급 시에 미래 사회 융합 전공과 주전공을 선택하여 희망 학과로 전과하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융합 전공에는 스마트자동차, 에너지 공학, 정보보호, 빅데이터, ICT 융통 물류, 통일외교 및 개발 협력이 있습니다. 저는 ICT 융통물류 전공과 주전공으로 컴퓨터학부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학부로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빅데이터, 정보보호, ICT 융통물류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해본 후,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기에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향후 진로가 IT인 경우에는 고교시절 배우는 수학 과목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는 다른 학과와는 다르게 문과 계열, 공학 계열, IT 계열 등 다양한 진로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남들보다 어느 하나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비교과 활동 및 입시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였습니다. 각종 시련을 겪으며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재의 캠퍼스 생활에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후회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

체육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겨울방학 준비

노동기 교사(인덕원고등학교)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체육대학과 관련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3학년이 되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되기는 하지만 수시모집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실기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 2학년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권 59개 대학을 분석해보면, 2021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형별 선발하는 모집인원 수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 1학년 학생들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학년 학생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각 전형별 변경사항과 이번 겨울방학에 대비하면 좋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생부교과전형

59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변동이 거의 없으나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가천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지역균형 모집인원 : 6), 경희대학교 체육학과(7), 스포츠의학과(6), 태권도학과(4),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과(5),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3)에서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하여 전체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에 비해 22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 100% 전형을 실시하고 가천대학교(학생부 우수자 2개 합 6등급)와 경희대학교(국어, 영어 중 1개 영역 3등급) 등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요 과목(국, 영, 수, 사, 과)의 교과성적이 반영되고, 2학년이나 3학년에서 배우는 진로 선택과목의 성적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 3과목 정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주요과목의 성적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수도권 대학이 아닌 지방 소재 대학까지 염두해 둔다면,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으니 자신 있는 과목부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생부종합전형

2019년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16개 대학(학생부 종합과 논술전형으로 입학정원의 45% 이상 선발하는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이 23학년도까지 40%까지 확대되면서, 해당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정시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체육대학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서울권 대학 31명 감소, 경기, 인천권 대학 38명 감소, 충청권 대학 3명 감소로 전체적으로 모집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의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유일한 전형이다 보니 정시 수능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실기준비가 안 된다면 꼭 준비해야 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학년 학생들이라면 가장 먼저 왜 체육대학에 가고 싶고 어떤 진로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포츠 직업인 인터뷰, 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 체육대학 학과 알아보기,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 알아보기 등을 여러 매체나 기사 등을 통하여 찾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앞으로 진로를 구체화 시키는데 필요한 활동을 찾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체육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학문이라기보다 파생학문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의 본 학문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대학은 크게 사범대학(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일반체육대학(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등), 인문체육대학(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등), 자연체육(스포츠의학과,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운동처방학과 등)으로 나뉘는데 각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보면 대학마다 배우는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인문체육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국어와 영어, 사회 과목의 학업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체육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수학과 영어, 과학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겨울방학을 보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2학년 학생들도 과목선택이나 비교과 활동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는 것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겠지만 아직 2학년 활동으로 끝나지 않은 독서 같은 비교과 활동은 겨울방학에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집에 따라 관심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고 탐구할 수 있다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활동만 많이 해서 합격한다기보다는 학업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주요 교과목의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3. 실기전형

2022학년도 수시모집 실기전형은 지역이나 대학의 특성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의 경우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가 수시모집에서의 실기전형의 인원수를 줄이고(42명에서 7명으로 감소) 정시모집(19명에서 55명으로 증가)으로 이동시켰고, 운동건강관리학과가 교과 100% 전형에서 실기전형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수시 실기모집 인원을 줄이고(12명에서 10명으로 감소) 정시모집인원(8명에서 14명으로 증가)을 늘렸고, 세종대학교의 경우는 특기자 인원을 줄이고(17명에서 15명으로 감소) 정시모집인원(19명에서 21명으로 증가)을 늘렸습니다. 경기권의 가천대학교와 대진대학교는 수시모집에서의 모집인원(가천대학교 12명에서 20명, 대진대학교 17명에서 20명)을 늘렸고, 충청권의 건국대학교(글로벌(12명에서 18명으로 증가),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12명에서 20명으로 증가), 선문대학교(16명에서 40명으로 증가, 정시 폐지), 호서대학교(19명에서 26명으로 증가), 한서대학교 레저해양스포츠(35명에서 45명으로 증가)의 경우가 수시실기전형의 모집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의해 2021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하락하고, 정시모집을 유지할 경우 경기권, 충청권 대학의 경우 우수한 학생을 놓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인지 정시모집에서 실시하던 실기전형의 인원을 수시로 이동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권 이하의 대학에서의 실기반영 비율이 높아 실기능력에 따라 합격, 불합격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요즘 학생들의 신체조건이 좋아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지도 능력도 향상되어 학생들의 실기능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신성적이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1, 2학년에서 배웠던 과목을 복습하고, 3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모집의 실기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2학년 학생들의 경우 늦어도 겨울방학부터는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금부터 학원에 가서 운동을 배우기보다는 기초근력운동(팔굽혀펴기, 턱걸이, 줄넘기 2단 뛰기, 맨몸운동 같은 상, 하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 윗몸일으키기)을 가정에서 먼저 실시한 다음 2학년 여름방학이나 수시 실기전형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실기준비를 시작한다면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4. 정시전형

2022학년도 충청권 이상의 59개 대학의 정시모집인원은 2,065명으로 전체 59개 체육대학 모집인원의 48.04%를 차지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중 수능 100% 전형은 207명으로 전체 정시모집인원의 10%를 차지하고 나머지 90%를 실기를 포함한 전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시모집의 실기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운동을 시작할 것을 고려하되, 수능 공부를 한다는 가정 하에 운동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시모집은 수능점수로 지원할 대학을 어느 정도 선택한 다음 실기 능력으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하지만 서울 중위권 대학부터 경기권, 충청권 대학의 경우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하거나, 국어, 수학, 영어 중 2과목 선택에 탐구 1과목 반영 등 학생들이 잘한 과목을 위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의 많은 대학이 탐구영역을 1과목 반영하므로 이번 겨울방학 때 2학년 때 배운 탐구과목 중 1과목을 선정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3학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3학년 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할 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체육대학의 많은 대학에서 영어를 가산점이 아닌 비율로 반영하고 있고, 반영비율이 결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의 영어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체육대학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상당히 준비할 것이 많아 겨울방학 동안 이것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는 전형에 따른 학습방법이나 준비할 것들을 챙겨 준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전형을 선택하던지 기본은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 목표를 이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전해보세요.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본격적인 학교생활을 하기에 앞서

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생부터 어느덧 수능과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까지,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자!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동안 자신의 꿈, 전공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으며 해당 지원 학과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꿈, 혹은 전공하고 싶은 분야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이루어나가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정하지 못하겠다면, 조금의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고민해나가도 좋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재미있는 과목이나 독서, 신문 기사, 주변 지인의 직업 등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면 자유전공학 과와 같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꿈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학과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내가 진학할 수 있는 대학교 찾기

이처럼 본인이 배우고자, 혹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했다면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어느 대학교에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대학교에 내가 전공하고 싶은 학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하는 경제학과와 달리, 회계세무학과는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교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놓아야 합니다. 저는 메모지에 제가 원하는 학과가 속해있는 대학교들 중에 '적어도 이 대학까지는 가겠다.'라는 저만의 목표 위의 대학교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상 가운데에 붙여 볼 때마다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디가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특

세특은 학생이 수업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발표나 토론, 질문과 같은 수업참여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세특은 양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이며, 성실하고'와 같이 일반적인 수업태도에 관한 내용보다는 활동 위주의 내용이 중점이 됩니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 본인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전공과 관련한 과목의 활동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꿈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상관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최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아리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 없는 동아리, 혹은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해 현재 본인의 동아리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경제학과에 진학했지만 1학년 때는 약사를 꿈꾸는 이과 지망생이었습니다. 동아리도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동아리에 가입했고, 활동도 모두 과학 분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문과로 전향했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어신문부'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저의 동아리는 제가 꿈꾸는 경제라는 학문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본인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동아리에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본인의 전공, 혹은 직업 가치관을 고양하는 발판으로 삼고, 이를 본인의 꿈과 연결한다면 누구보다 개성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자율동아리입니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대학교에서는 자율동아리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율동아리를 통해 수업시간에는 얻기 어려운 전공분야 지식을 습득하고,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경제' 학문을 배우지 않았고, 동아리도 저의 전공과 거리가 멀었기에 경제 관련 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율동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주식이나 금융업의 원리, 현재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광고기획 동아리와 연합하여 함께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의 색다른 활동을 하여 생기부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수상

글쓰기 대회, 보고서 경진대회, 표어 공모전, 골든벨 등 학교에는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상은 본인의 인성을 대변해줄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의 수상은 전공 외 다양한 분야에서의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상기록은 학생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총 42개의 수상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상하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세특에 기재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시니,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봉사를 한다면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진로 희망이었던 회계사와 관련된 봉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봉사로 채우지 못한 희망전공 관련 노력을 학교활동으로 채워주는 마음가짐을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험공부와 수업 및 대회 준비를 하느라 바쁜 학생들이 봉사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못한 친구들은 여기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학교활동과



독서

전공과 관련한 책을 많이 읽고, 가능한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1~2권에 불과하더라도, 다양한 독서는 학생의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할 때 각각의 책마다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메모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3 내신 및 수능 학습방법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학습법은 다릅니다. 저의 내신 및 수능 공부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래너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용보다는 꾸미기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플래너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쓰지 않는 아버지 수첩이나 외부에서 나누어주는 줄만 그어져있는 수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고, 그것들을 해나갈 때마다 형광펜으로 지워갔습니다. 고3 때는 태블릿PC에 적었습니다. 쓰고 지우기가 간편하고, 인강을 듣느라 늘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신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 요일마다 골고루 과목 공부 시간을 배분하였습니다. 주간별, 요일별 계획은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놀 아자를 했었는데, 잠이 부족한 탓에 아자시간에 많이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자 시작 시간에는 무조건 음악을 들으며 수학공부를 했고, 만약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졸리면 그 즉시 생운 공부로 넘어가는 등 공부 과목을 바꿔가며 잠을 깨도록 노력했습니다.



국어

문학의 경우, 백지상태에서 시만 읽어도 각 구절마다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복습하였습니다. 문학지문들을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고,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림을 그려 이해하였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비문학 지문을 3개씩 풀면서 아침에 국어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고, 문제 풀이 속도와 정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학

내신 수학을 준비할 때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반복풀이의 장점은 특정 문제 유형과 풀이가 자연스럽게 눈과 머리에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뿐 아니라 시험 범위 외의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공식이나 헛갈리는 개념, 계속 실수하는 문제들은 따로 적어 시험 당일에는 그 문제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거의 모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과 당일에는 어려운 문제보다는 제가 특하나 실수하는 부분, 까먹은 부분, 가장 어렵게 느끼는 개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부분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영어

내신 영어는 보통 지문을 암기해야 만점을 받을 수준의 난이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문의 수가 굉장히 많아 암기하기에는 벅찬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을 달달 외우는 대신, 많이 읽기로 했습니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하루에 공부할 지문의 개수를 정하고 늘 읽었습니다. 학교 가는 차 안에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읽었고, 그 시간 안에 읽지 못하면 자습 시간 일부를 투자하여 읽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눈으로 쓱 훑는 것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정확히 하면서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예상 서술형 문장, 헛갈리는 조사, 핵심단어, 접속사를 다 표시하였습니다. 거의 10번에 가깝게 읽자 지문 첫 문장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똑같이 읽었음에도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는 지문들은 표시를 해두었다가 다른 지문보다 더 많이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특정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지문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등 달라진 문제 유형에 맞추어 공부할 때 강조점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할 지문 분량이 많은 만큼, 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구

사탐은 내신공부가 곧 수능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헛갈리는 개념은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할 때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으로 이미 풀었던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 문제들은 태블릿으로 다시 풀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푼 문제들도 있지만, 어렵듯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맞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다시 풀고, 틀린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3번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한국사

저는 한국사에서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성적이 가장 낮은 과목이 한국사였기 때문입니다. 내신 공부할 때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은 다음, 한글파일에 연도별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한글파일에 나열된 인조반정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수능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한국사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EBS 강의를 들으면서 노트에 한국사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집을 풀어 알게 된 사실들을 보충하면서 그 노트 한 권으로 한국사 공부를 마쳤습니다.

4 자소서 및 면접 준비

① 자소서 쓰기

자신의 전공과 가장 관련 있고, 뜻깊은 활동을 자소서 소재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기부에서 저의 전공과 동떨어져 보이는 활동도 소재로 삼았습니다. 1학년 때 과학 동아리에서 한 활동을 자소서 1번에 썼는데, 과학 활동이 후에 저의 진로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본인의 전공과 거리가 있는 활동들을 진로 활동에 있어서 좋은 소재로 이용해보세요. 생기부로는 말하지 못한 부가 설명을 덧붙인다면 생기부 속 그 활동은 단점이 아니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는 전공과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소서 3번을 예로 들자면, 대부분이 예측 가능한 봉사에 관한 스토리보다는 전공과 관련하여 진행했던 활동을 엮고자 하였습니다. 제 꿈이 회계사이고, 제가 지원하는 학과가 경제학과임을 고려하여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급비를 걷었던 일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 절충안을 모색하는 회계사를 꿈꾼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직업적 다짐을 표현했습니다.

저의 사례와 더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참고는 내 글을 더 좋은 글로 만들 수 있지만, 지나친 참고는 글에 묻어난 본인의 색깔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 각각의 인재상에 맞게 글을 쓸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같은 질문이라도, 대학교의 특성에 맞게 소재와 내용을 달리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자소서를 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세요.



② 면접 준비하기

제시문 면접의 경우에는 대학교 홈페이지나 면접 후기를 통해 질문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윤리 책이 제시문 면접 준비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질문 중에 윤리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윤리 교과서나 문제집 속 지문과 여러 사상가들의 주장을 복습하면 면접 때 질문으로 제시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답변으로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면접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면접 후기에 나온 질문들을 나의 상황에 맞게 각색하고, 내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할 것을 대비하여 가장 싫어하는 과목의 공부법은?, 가장 인상 깊은 책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일상적 질문에도 답해보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PPT에 교수님들 얼굴을 띄어놓고 준비해서 면접 때 교수님들이 친숙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도 면접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니 참고해주세요!

5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얼마 전까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었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주위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진로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제가 진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성적을 1점대 초반까지 올렸음에도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반응은 냉정했기에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고, 걱정과 고민도 상당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며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대학교 지원을 할 때 제 소신껏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대학교 진학에 있어서 주변으로부터 위축되어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공부에 지쳐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은 저의 목표 성적을 플래너의 맨 앞장에 붙여놓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부터 사용했는데, 공부만 하는 저와 달리 재미있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억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붙여놓은 목표를 보면서 나는 지금 놀지 않고, 공부해서 이 성적을 받아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중에 그 목표 성적을 달성하여 뿌듯해할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제 성적 향상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 목표를 이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도전해보세요. 꿈을 향해 달려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바로 기억이 납니다.”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학습방법

안녕하세요. 2020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모니터링단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방법에 대한** 팁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할 때 공부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그 전날 밤에 다음날 해야 할 공부량을 작성해 놓고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타이머를 키고 공부한 시간을 기록합니다. 플래너를 쓰면 자신이 공부한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못했던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특강을 푸셨을 텐데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 또 몰랐던 문제를 따로 노트에 정리해서 다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닌 여러 번 복습해야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능특강 변형문제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뽑아서 한 번씩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어

화법과 작문, 문법, 문학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국어를 공부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은 잘 하지만, 그에 반해 문학은 비문학과 문학으로 나뉘어 여러 가지 갈래를 이해해야 하므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문학을 공부하실 때에는 갈래별로 정리를 하고, 또 그 작품의 특징, 중요인물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평소에 자주 읽어본다면 머릿속에 잘 남아서 도움이 됩니다.

수학

많은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시를 준비하였을 때에는 평소에 3권 정도의 문제집을 같이 풀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익히는 문제집, 수능 기출문제집, 내신 대비 문제집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하루에 푸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풀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실 때 내신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수능 기출문제도 같이 풀면서 수능을 같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학은 여러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기본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수학을 공부할 때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바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나중에 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바로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2 자기소개서

두 번째로 **자소서**에 대한 팁입니다. 미리 자소서를 작성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작성을 해 보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자신이 해온 활동들을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자소서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1번에서 3번은 공통질문이지만 대학교별로 4번 질문이 다르므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의 질문을 미리 찾아놓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후에는 내가 가장 의미를 두고 참여한 활동, 내 진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따로 빼서 자소서 문항 1번에서 4번까지 중에서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밑바탕이 있어야 나중에 자소서를 작성할 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생활기록부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팁입니다. 먼저 첫 장을 넘기면 수상 경력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수상 경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였고 많이 수상하였기 때문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면접을 가게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도 받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봉사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지어서 한다면 면접을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자소서의 3번 부분에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학년이 되면 수능준비, 내신준비로 아주 바쁘지만 독서는 놓지 않고 꼭 해야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2주에 한 권 정도씩 진로와 전공에 관련된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후에는 독후감을 항상 작성하여 나중에 면접준비를 할 때 독후감을 읽으며 내가 이러한 도서를 읽었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정보탐색

마지막으로 정보탐색에 대한 팁입니다. 고3 학생들은 실제로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어디가'를 잘 활용하여 미리 대학교에 대해 탐색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희망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 인재상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했기에, 생활기록부에도 그와 적합한 활동들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 여쭙 수 없는 전공 질문 등은 '어디가'의 온라인 상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